

삼성비자금 폭로 김용철 변호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됐다



광주시 교육청의 첫 개방형 감사단 당관에 삼성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53·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최근 공모신청자 중 최종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김변호사를 선정했으며 신원조회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감사관은 4급(서기관) 상

당이며 계약기간은 2년, 최대 5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신원조회를 거쳐 가능한 내년 1월 1일 자로 임용할 계획이다.

김변호사는 감사관 지원배경에 대해 “고향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에 지역대학에서 강의를 하곤 했다”며 “대통령 참모가 기초의원을 하는 데, (제가) 감사관에 지원한 것은 이상할 것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용되지 않은 처지에서 직무를 언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교육청 방침에 따라 들어다 볼 뜻이 있다면 깊이 보겠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심사위원들이 김내정자의 다양한 수사경력, 청렴성, 도덕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 출신인 김변호사는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검사로 일하다 9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0월 29일 자신 명의의 계좌에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다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폭로, 삼성비자금 특검의 단초를 제공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 ‘시동’

오늘 1차 위원회의… 위원장 김진의 서울대교수

광주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 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김진의 서울대 교수(전 서울대 이론물리학 연구센터 소장)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계 및 학계·과학기술계 등 저명 인사를

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광주권 유치위원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연구개발(R&D) 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국내 와 아시아권 국가들 간 접근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권은 과학 기술 연구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의 핵심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 과학비즈니스(Science to Business)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최근 침단 의료복합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영남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를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는 7년간 3조 5487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기초 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진흥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초 과학연구원과 대형연구시설인 종이 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사업의 핵심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지사, 영암 아동센터 방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28일 오전 영암군 미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아동급식 실태를 직접 살폈다. 박지사가 어린이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얘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인구감소율 전국 최고

올 171만명 5년새 5.6% 감소…광주는 3.6% 증가

전남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특히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 비율이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집계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는 171만9000명으로 지난 2000년 199만6000명과 2005년 182만명에 이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인구감소율도 전남이 5.6%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3.4%), 전북(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가구(67만

000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8.2%로 5년 사이 3.7%포인트가 증가하면서 경북(28.4%)에 이어 전국에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출로사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광주 인구는 146만9000명으로 5년 전(141만8000명)보다 3.6%가 증가했다. 광주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2.0%)을 웃돌면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도 전체 가구(51만4000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3.4%로 5년 사이 4.4%포인트가 증가했다. 광주는 1인 가구 비율 증가율이 경북(4.5%)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수는 광주가 145만4784명, 전남은 191만8263명이다. 그만큼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간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연합뉴스)

암환자 5명 중 3명 완치

70만명 생존… 위암·대장암보다 높아

암 치료율이 60%에 이르면서 암 진단을 받고서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국가 암등록사업을 통해 암 관련 통계를 산출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암치료율은 59.5%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암 환자 5명 중 3명이 최초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셈이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1995년 간 암 환자의 41.2%, 1996~2000년 간 암 환자의 44%, 2001~2005년 간 암 환자의 53.4%에 비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암정복 10개년 계획’ 시행 이

전인 1993~1995년과 비교하면 전립선암 환자의 완치율이 30.3% 포인트나 높아진 것을 비롯해 위암(20.3%p 상승), 대장암(15.3%p 상승), 간암(12.6%p)의 완치율이 상승했다.

특히 흡연 등 발암 위험요인이 많고 조기발견이 쉽지 않은 남성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4.9%에서 50.8%로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생존율은 각각 63.1%, 23.3%, 80.5%로 미국(26%, 13.8%, 70.2%)과 캐나다(22%, 15%, 70%)보다도 높고 대장암, 유방암은 미국, 캐나다와 비슷한 생존율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서울~인천공항 철도 완전개통

‘58km’ 43분이면 간다

서울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이르는 인천공항철도 58km 구간이 29일 완전히 개통됐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인천공항역에서 각각 29일 오전 5시20분 첫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에서 본격적인 운행이 시작된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사업비 4조2184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의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01년 첫 삽을 뜯지 10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한 2단계 서울역~김포공항 구간(20.4km)은 총 사업비 2조 4811억원이 투입돼 2004년 1월 착공 이후 7년 만에 가동하게 됐다. 공항철도 전 구간 개통으로 43분이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고, 영종도 등 인천 서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의 이동시간이 40~50분대로 단축된다. 2단계 구간의 인천공항철도 역은 모두 환승역이어서 총 10

개 역 가운데 6개 역에서 수도권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KTX 철도망과 연결된다. 공항철도 운행횟수는 하루 214회에서 422회(왕복기준)로 늘어나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는 6분 간격, 서울역~인천공항 직통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운임은 서울역~김포공항 구간의 일반열차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요금이 적용돼 서울역~인천공항역이 당초 5300원에서 3700원으로, 서울역~김포공항역 구간은 1900원에서 1200원으로 낮아졌다.

(연합뉴스)

화순군 공고 제2010 - 947 호

「화순노인전문병원」수탁자 공개모집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0. 12. 29

화순군수

1. 화순노인전문병원 개요

- 명 칭 : 화순노인전문병원
- 위 치 : 화순읍 일심리 72번지 일원
- 규 모 : 192병상(부지15,887㎡, 건물연면적8,923㎡, 지하1층, 지상4층)

2. 위탁대상사무 : 화순노인전문병원

- 병원 및 병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성질환의 진료·치료·공공의료 등에 관한 사항
-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등 병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4. 신청자격 (근거 :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5. 신청조건

-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상에 포함되지 않는 필요 집기류 및 의료장비(구급차 및 사업차량 포함) 등의 설치·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SPSC(노인병원 민간사업 참여자)사의 시설물관리·운영에 대한 비용 일체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함.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 01. 05 (14:00 ~)
- 장 소 : 화순군보건소 3층 소회의실

7.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0.12.29 ~ 2011.01.19 (※ 09:00 ~ 18:00까지 근무시간 내)
- 접수기간 : 2010.12.29 ~ 2011.01.19 (※ 09:00 ~ 18:00까지 근무시간 내)
- 접수처 : 화순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 061-379-534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8. 제출서류

- 신청서(화순군 및 화순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1부.
-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10부.

9. 심사방법

- 근거법규 :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선정기관 : 화순노인전문병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개별통지

* 선정이 무효화 되거나 수탁선정자의 수탁의사 철회 시 차순위득점자(평점60점이상)

가 수탁자로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모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하게 되므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제안서에 하위의 사설을 기재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379-5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